한국학연구 제68집 | 463~488쪽 | 2023.2.

김승옥 소설의 자기기만의 현상학

김영찬*

〈차 례〉

1. 들어가며
2. 위장과 방어, 망각의 의지
3. 과잉방어 혹은 이중의 부정
4. 자기기만의 유혹, 쓸쓸하거나 즐겁거나
5. 결론을 대신하여 : 감수성이라는 전리품

[국문초록]

이 글은 김승옥 소설의 심리를 움직여가는 자기기만의 의식구조를 추적한다. 김승옥 소설의 인물들은 자기의 모든 사고와 행위가 자기기만의 술책임을 알고 있다.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를 속이는 것만이 자기를 보존하는 생존의 기술임을 삶 속에서 깨우치기 때문이다. 김승옥의 소설은 그런 자기기만의 도피가 야기하는 뒤틀린 왜곡과 자해를 전면화하거나 자기기만이 이미 생활화된 인간들의 쓸쓸하고도 희극적인 연기(演技)를 펼쳐놓는다. 그는 자기기만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좌절과 고뇌에 혁명과 반혁명 이후의 한국적 삶의 혼돈 속을 방황하는 작가 자신의 불편한 자의식을 겹쳐놓는다. 그리고 이 자기기만의 의식은 김승옥 소설 특유의 감수성의 원천과도 무관하지 않다. 김승옥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선택의 회피는 판단할 수 없음이라는 인식과 짝지어져 있다. 그들에게 자기 확신의 부재는 판단과 선택의 가능성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한다. 세상에 패배하고 도피하는 자아는 멀리 떨어진 세상을 그렇게 '느낌'으로써만 자기를 확인한다. 화려한 감수성의 매력은 좌절과 도피의 공간에서 그렇게 피어난다. 이 감수성이야말로 인물들의 쓰라린 자기기만에 공감하는 김승옥의 소설이 도피를 통해 수확해낸 빛나는 전리품일 것이다.

[주제어] 자기기만, 자기세계, 태도의 희극, 연기, 도피, 감수성, 불안, 선택

* 계명대학교 국어국문학전공 부교수

1. 들어가며

김승옥 소설의 중심에 있는 것은 불안과 절망, 혼란과 분열, 자학과 가학으로 뒤범벅된 청춘의 자의식이다. 혁명에 뒤이은 반혁명, 급격한 근대화의 물결에 휩쓸려 떠밀려가는 자아를 추스르려는 절망에 찬 청춘의 방황과 분투를 그만큼 생생한 언어와 감수성으로 보여준 소설은 일찍이 없었다. 그런 김승옥 소설의 면모에 대한 당대의 평가는 '개인의식의 확립'이라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김승옥 소설의 핵심 문제가 '자기(自己)'에 있다는 김현의 평가[1]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소설에서"자의식의 내면구조의 파악"[2]과 "인간의 내적 상황의 탐구"[3]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의미가 "개인의 발견"[4]에 있다고 하는 일련의 평가들이 그런 맥락에 있다. 그리고 이는 아직까진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문학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그처럼 '개인의식의 확립' 혹은 '개인의 발견'에 방점을 찍을 때, 그 개인의식이 지극히 어둡고 병리적인 것이라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된다. 가령 김현의 경우에도 김승옥의 세계가 "어두컴컴한 의식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답답하고 습기찬 세계"[5]임을 일면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그보다는 그런 자기의 상황을 수락하고 극복하려는 의지와 자세를 전면에 부각하는 식이다.[6] 그러나 김승옥 소설의 매력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보다는 오히려 흔들리고 분열되는 병리적인 자의식의 생생하고 다채로운 풍경 그 자체에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60년대에 쓴 자신의 소설이 "한낱 지독한 염세주의자의 기괴한 독백"[7]일 뿐이라 했던 작가의 논평을 우리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다음 고백도 마찬가지다.

---

1) 김현, 「미지인의 초상 1－승옥과 성원의 경우」, 『세대』 1966년 8월호, 304쪽.
2) 김윤식, 「잃는 세대의 문학」, 『현대문학』 1969년 10월호, 41쪽.
3) 김병익, 「일세대의 의미」, 『한국문학』 1969년 1월호, 317쪽.
4) 김주연, 「새시대 문학의 성립－인식의 출발로서 60년대」, 『아세아』 1969년 2월호, 255쪽.
5) 김현, 「구원의 문학과 개인주의」, 『사회와 윤리』, 일지사, 1972, 239쪽.
6) 위의 글, 240쪽.
7) 김승옥, 「나와 소설쓰기」, 『무진기행』, 김승옥 소설전집 1(개정판), 문학동네, 2004, 8쪽.

> 소름끼치는 혼돈, 방향을 분간 못하는 어둠, 이것이 나의 20대였던가. 객설, 치기 그리고 광기, 상징의 수단밖에 갖지 못한 단순함, 소설을 자기 표백으로만 사용하려는 인색…….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도망하고 싶은 것이 그 이유였다는 걸 지금 나는 발견하는 것이다. 나의 20대야말로 어둠 속을 천방지축 헤매는 과정이었다는 걸 발견하는 것이다.[8]

김승옥 소설을 관통하는 핵심은 이처럼 혼란과 절망, 불안과 열패감으로 들끓는 분열된 내면이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치기와 객설, 강박적인 작위(作爲)의 안간힘이다. 여기엔 어떠한 극복의 의지도, 정화(淨化)도 승화도 없다. 그리고 김승옥은 등단작인 「생명연습」에서 이를 '자기세계'라고 이를 붙였다.

김승옥의 소설은 한마디로 이 복잡다단하고 병리적인 '자기세계'의 무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개인의식의 확립'이라는 평가의 연장선상에서 김승옥의 '자기세계'에 부여된 그간의 이런저런 긍정적인 가치평가는 당연히 정곡과는 거리가 멀다.[9] 그런 측면에서 자기세계의 중심에 다름 아닌 죄의식이 있음을 지적하는 최근 논의들[10]은 병리적인 분열로 동요하는 저 자기세계의 진실의 일면을 포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지 그뿐일까?

김승옥의 자기세계의 내부에 어두운 죄의식이 웅크리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의식으로 물든 그 조작적 의식현상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 핵심을 일찍이 김현은 이미 예리하게 포착한 바 있다. 김현은 김승옥의 소설에서 자기세계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세계를 갖게 되는 것은 "의식 내부의 섬세한 조작"을 통해서이며 이는 "재래의 인간형에 대한 날카로운

---

8) 김승옥, 「후기」, 『야행』, 정음사, 1972, 375쪽.

9)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수형의 지적이 있었다.(이수형, 「주체의 책임과 자유－김승옥의 중·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상허학회, 『상허학보』 16호, 2006, 417쪽.) 최근 신아현도 같은 맥락에서 '자기세계'라는 개념에 이상적 가치를 부여해왔던 기존의 성급한 가치평가가 재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신아현, 「극기에의 실패－김승옥 초기 소설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0호, 2016, 7쪽 참조.

10) 대표적으로 이수형, 위의 글; 설혜경, 「김승옥 소설의 죄의식의 경제와 자본주의 논리」,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의 연구』 48호, 2012; 이광호,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마조히즘과 시선의 문제」, 한국현대문학회, 『한국현대문학연구』, 39호, 2013.

도전"이라고 말하면서 그 의의를 이렇게 적는다.

> 그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다. 하나는 의식 내부에서 조작된 세계를 가진다는 것이 개인의 성격을 뚜렷이 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이 싸르트르류(流)의 표현을 빌면 소위 '개 같은 놈'으로 사람이 변모해가는 양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 동시에 그것은 그 개성이 얼마만큼의 자기기만을 통해 형성된 것인가도 파악하게 해준다.[11]

이에 따르면, "의식 내부의 섬세한 조작"을 통해 형성되는 자기세계의 본질은 바로 '자기기만'이다. 그리고 김승옥의 소설은 그처럼 "가장 성실하게 세계를 살아나가는 듯한 사람들이 결국 얼마나 간교한 자기기만을 통하여 '개 같은 놈'으로 변해버리는가를"(246쪽) 보여준다. 김현은 그 자기기만을 "태도의 희극"이라고도 달리 부르는데, 그에 따르면 그것이야말로 "「생명연습」에서부터 시종 일관되는 작가의 제재"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그의 소설은 계속 독자의 가슴을 찌르고 할퀸다."(244쪽)

이처럼 김현은 자기세계의 본질이 결국 자기기만이며 그것이 김승옥 소설의 일관된 제재였음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이때 김현이 시사한 것이 사르트르적 의미에서의 자기기만(mauvaise foi)임은 그가 굳이 사르트르의 이름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도 어렵지 않게 짐작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그 자기기만의 의식상황을 더 이상 철저하게 파고들어가진 않는다. 단지 그것이 "현실을 부정하고 왜곡시키는 일"(241쪽)임을 암시할 뿐, 그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은 '태도의 희극'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대체된다. 또한 그는 자기세계의 배후에는 주어진 상황을 수락하고 "극복하려는 의지"(240~241쪽)가 있음을 주장하는데, 엄밀히 보면 그것이 사르트르적 의미에서의 자기기만의 의식상황과 배치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도 그다지 관심이 없는 듯하다.

여하튼 김현의 지적처럼 김승옥 소설의 핵심에는 자기기만이 있다. 그러나

11) 김현, 「구원의 문학과 개인주의」, 242쪽. 이 장에서 이 글을 인용할 때는 쪽수만 적는다.

김현은 이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도, 그 의식구조의 전모나 작동 기제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모호한 공백으로 남겨놓았다. 이는 그의 강조점이 자기기만의 구체적인 양상보다는 오히려 거기에서 "개성 있는 인간"에 대한 통찰과 이를 통한 "새로운 문학의 가능성"(242쪽)을 찾는 데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승옥 소설에 대한 후속 논의들 역시 김현이 김승옥의 인물들에게서 포착한 이 자기기만의 의식에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진 않았던 것 같다.[12] 이는 다소 의아한 현상이다. 왜냐하면 김현이 포착한 저 자기기만이라는 병리적 의식이야말로 김승옥이 그려놓은 '자기세계'를 관통하는 핵심이며 다름 아닌 바로 거기에 김승옥 소설의 의미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김승옥 소설의 심리를 움직여가는 자기기만의 의식구조를 추적한다. 어떤 측면에서 이는 김승옥 소설 속 인물들의 자기기만을 포착한 김현의 오래전 통찰을 다시 불러들여 이루어지는 '겹쳐 쓰기' 혹은 '고쳐 쓰기'의 작업이 될 수도 있겠다.

2. 위장과 방어, 망각의 의지

김승옥의 소설에서 인물들의 자기기만은 그들 특유의 '자기세계'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의식 활동이다. 적어도 「서울 1964년 겨울」에 이르기까지, 김승옥의 거의 모든 인물들은 이 자기세계를 가지려고 분투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자기세계를 살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그 자기세계란 대체 무엇인가? 「생명연습」에서 김승옥은 '나'의 입을 빌려 이렇게 답한다.

---

12) 김승옥 소설에서 그려지는 자기기만의 테마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부분적이나마 비로소 조명되기 시작했다. 복도훈은 김승옥의 인물들이 자기기만을 연기한다고 지적하면서 『환상수첩』을 중심으로 그 양태를 분석한다. 하지만 그는 자기기만을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이 그 자신의 일부를 이루는 아이러니의 정신"과 결부시키면서 일종의 젊음의 속성으로 환원시켜버린다. 복도훈, 『자폭하는 속물－혁명과 쿠데타 이후의 문학과 젊음』, 도서출판 b, 2018, 135~173쪽 참조.

> '자기세계'라면 분명 남의 세계와는 다른 것으로서 마치 함락시킬 수 없는 성곽과도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성곽에서 대기는 연초록빛에 함뿍 물들어 아른대고 그 사이로 장미꽃이 만발한 정원이 있으리라고 나는 상상을 불러일으켜보는 것이지만 웬일인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세계'를 가졌다고 하는 이들은 모두가 그 성곽에서도 특히 지하실을 차지하고 사는 모양이었다. 그 지하실에는 곰팡이와 거미줄이 쉴새없이 자라나고 있었는데 그것이 내게는 모두 그들이 가진 귀한 재산처럼 생각된다.[13]

이에 따르면 자기세계는 "남의 세계와는 다른", 즉 자기를 남과 구별해주는 자기만의 것이고 "함락시킬 수 없는 성곽"과도 같은 것이다. 그중에서도 '나'가 아는 자기세계는 유독 "곰팡이와 거미줄이 쉴 새 없이 자라나"는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비유된다. 그런데 '나'는 의아하게도 지하실을 뒤덮은 그 곰팡이와 거미줄이 "모두 그들이 가진 귀한 재산처럼 생각된다"고 말한다. '나'는 왜 그 음침한 것들을 '귀한 재산'이라고 생각하는가? 왜냐하면 저 음침한 자기세계란 쓰라린 상처와 감정의 격랑을 기꺼이 감수하고서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자기만의 전리품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연습」에서 그 전리품을 얻기 위한 전쟁은 '극기'라는 말로 설명된다. 이때 극기란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가는 강박적인 행위를 총칭한다. 자기세계는 그런 극기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은폐하거나 훼손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쓰라린 감정의 소용돌이를 잠재우고 통과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내부"를 "무관심한 표정으로 가려버리는 법"(「환상수첩」 2;12쪽)을 터득했을 때, 자기세계는 비로소 완성된다. 이때 '자기세계'의 '자기'는 조작된 '자기'이자 본래의 자기를 부정하는 위장의 가면(假面)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기만은 그렇게 자기를 훼손하면서 자기를 추스르려는 왜곡된 의식의

---

13) 김승옥, 「생명연습」, 『무진기행』, 김승옥 소설전집 1(개정판), 문학동네, 2004, 30쪽, 여기서 인용하는 소설은 김승옥 소설전집 1권인 『무진기행』과 2권인 『환상수첩』에 실린 소설들이다. 아래에서 소설의 인용은 이 전집판에 따르며, 인용문 뒤에 전집의 권수와 쪽수만 적는다.

한가운데서 작동한다. 자기기만(mauvaise foi)은 불어의 원뜻 그대로 (자기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의미한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자기기만이란 "의식이 그 부정을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태도"이며, 그런 한에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진실을 가리는 것"이다.[14] 달리 말하면,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이 그것이 아닌 것으로 있다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여기서 속는 자와 속이는 자는 하나의 의식 안에 공존하며, 주체는 그렇게 자신이 이러저러한 주체로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연기(演技)한다.[15]

자기세계의 '자기'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속이고 부정하는 연출된 '자기'다. 이때 부정되는 자기란 바로 '있는 그대로의 자기'다. 그들은 작위로 연출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위장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한다.[16] 가령 김승옥의 인물들이 애써 만들어내는 "무관심한 표정"은 자기를 뒤흔드는 감정에 무심할 수 없는 자기의 진실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실을 필사적으로 자기에게 숨기려는 위장의 기술이다. 그래서 「환상수첩」의 정우는 이렇게 말한다. "무관심한 표정도 기술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저 남의 흉내나 내다가는 단단히 속으니까."(「환상수첩」 2;13쪽) 속지 않으려면 잘 속여야 한다.

그런데 왜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부정하고 위장된 자기를 연출하는가?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처한 굴욕적인 상황을 회피하고 그로부터 자기를 방어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승옥의 소설에서, 본래의 '나'로 산다는 것은 굴욕과 열패감, 그로 인한 상처에 자아를 무방비로 노출하는 일이다. '나'가 생각하는 서울의 삶은 도시가 주는 "상처"(「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1; 132쪽)에 "끙끙 신음만 울리며"(「확인해본 열다섯 개의 고정관념」 1; 156쪽) "욕된 생활"(「환상수첩」 2; 8쪽)을 감수해야 하는 삶이며, 그 삶은 "모든 논

14) 장 폴 사르트르, 정소성 옮김, 『존재와 무』, 동서문화사, 2009, 114~118쪽 참조.
15) 위의 책, 132~133쪽 참조.
16) 사르트르에 따르면 '나' 안의 속이는 자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자기기만의 조건이다. "나는 신경을 써서 진실이 나로부터 더 잘 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진실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위의 책, 116쪽.(번역은 수정했다.)

리가 꺾이고 지성이 힘을 잃고 (……) 마구 쓰라리기만 한 감촉의 시간"(「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1; 132쪽)일 뿐이다. 헤어날 수 없는"덫"[17]에 걸려 끊임없이 자기 안의 "뻥 뚫린 구멍"(「환상수첩」 2; 21쪽)과 대면해야 하는 삶. 그것이 서울에서의 삶이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위장은 이에 대한 방어의 방식이다. 즉 저들의 자기기만은 굴욕과 공허와 열패감에 맞닥뜨린 상황 속의 자기를 부정하고 회피하는 방식이다.

「환상수첩」에서 정우가 여자친구인 선애를 부담스러워하고 그녀에게 "경원심(敬遠心)"(2;19쪽)을 갖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숨겨야 하는 그런 굴욕적인 자기의 진실을 그녀가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그대로 발설해버리기 때문이다.

> "……어쩐지 뻥 뚫린 구멍을 보아버린 것 같아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별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구멍이지요. 찬바람이 술술 새어들어오고……"
>
> "그럼 전엔 그런 걸 못 느꼈던 말야?"
>
> "희미하게 느끼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득바득 이를 악물고 해나가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이젠……"
>
> "아아."
>
> 내가 여태껏 차마 입 밖에 내어 말할 수 없었던 것을, 그녀는 그때, 하늘도 무섭지 않은지 정확한 발음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
> "찬바람이 불어오는 뻥 뚫린 구멍, 찬바람이 불어오는 뻥 뚫린 구멍……"
>
> 나는 노래하듯 중얼거리고 있었다.(2; 21쪽)

"뻥 뚫린 구멍"은 회피해야만 할 자기 자신의 진실이다. 선애는 그 진실을 발가벗기고 대면하게 만든다. 선애를 영빈에게 짓밟히도록 넘겨버리는 정우의 패륜은 일면 자기의 진실을 필사적으로 억압하고 회피하려는 안간힘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작동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망각의 의지이며, 이는

17) 김승옥, 「더 많은 덫을」, 『문예중앙』 2010년 가을호, 449쪽.

자기가 맞닥뜨린 불안으로부터 도피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자기기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기만은 그럼으로써 안전지대에 몸을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8] 김승옥의 인물들은 그런 회피와 방어라는 자기기만의 목적을 저렇게 필사적으로 수행한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기만 속으로 도피한다.

그런데 이뿐이라면 너무 평범하지 않은가. 그러면 김승옥 소설의 자기기만은 단지 사르트르가 설명한 자기기만의 통속적 버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김승옥의 소설이 그럴 리 없다. 김승옥의 인물들이 도피하는 저 자기기만의 세계는 사르트르가 『존재와 무』에서 제시하는 자기기만의 사례보다 한 층 더 복잡 미묘하고 병리적이며 드라마틱하다. 그것은 무엇보다 자기를 위장하는 저들의 자기기만의 과정에는 평화로운 의식의 조작이 아닌 자학과 가학의 행위가 동반되고 있기 때문이며, 거기에서 기인한 살의와 회한과 증오와 죄의식이 뒤섞인 복합적인 정념들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사르트르가 인간 실존에 동반되는 어느 면 불가피한 의식으로 묘사한 자기기만과 달리 김승옥의 인물들이 펼쳐놓는 저 자기기만의 풍경은 어째서 저토록 왜곡되고 부정적인 정념으로 들끓고 있는가?

3. 과잉방어 혹은 이중의 부정

모든 것은 과잉방어에서 비롯된다. 김승옥 소설의 인물들은 단지 상황 앞에 무력한 굴욕적인 자기를 수동적으로 회피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한 걸음 더 앞질러 나아가 패륜을 자행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행동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임을 주장한다. 예컨대 「건」에서 윤희 누나를 윤간하려는 형의 계획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돕는 '나'의 생각이 바로 그렇다. '나'는 "너 윤희에

18) 장 폴 사르트르, 앞의 책, 149쪽과 141쪽.

게 심부름 좀 갔다와, 응?" 하는 형의 말에 "응"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얼결에가 아니라 나는 벌써부터 그런 부탁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건」, 76~77쪽) 「환상수첩」에서는 또 어떤가. 선애를 '정복'하는 데 성공했다고 적힌 영빈의 쪽지를 보고 분노하는 정우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런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니었던가."(「환상수첩」 2; 24쪽) 여기서 작동하는 심리의 일단을 「환상수첩」의 정우는 이렇게 설명한다.

> 내 지난날의 그 평안, 토끼의 세계를 떨구어가듯이—그 세계가 잦아져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막연한 필요성 때문에 도망하는 듯한 안타까움이 있었다. 게다가 **시대의 핑계만으로는 단념할 수가 없다는 집념**이 거기에 곁들이고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환상수첩」 2; 42쪽—강조는 인용자)

자기기만의 본질은 그럴 수밖에 없음을 상황 탓으로 돌리는 '핑계'를 대는 것이다.[19] 하지만 여기서 '나'에게 "시대의 핑계" 따위는 부차적인 것이다. 지난날의 평안과 '토끼의 세계'는 시대의 흐름 때문에 스러져가는 게 아니라 '나'가 어떤 필요 때문에 자발적으로 거기에서 도망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편으로 "안타까움"이 뒤따르긴 하지만, 도망치는 걸 단념할 수 없다는 "집념"이 그보다 한층 강하게 작용한다. 단념해선 안 된다는 바로 그 집념이 저들의 도피와 부정을 한층 더 강박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 강박은 주로 심정적 애착의 대상인 여성에 대한 가해로 나타나며, 그것이 자기를 훼손하는 자해의 왜곡된 표현임은 말할 것도 없다.[20] 이는 결국 상황 앞에 무력한 자기를 자발적으로 자해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상황의 횡포를 자기가

19) 서동욱, 「사르트르에서 병리적 의식과 자기기만」, 한국현상학회, 『철학과 현상학 연구』 57호, 2013, 9쪽.

20) 김승옥 소설의 인물들이 자행하는 여성에 대한 가학이 자신에 대한 강박증적 자학과 다르지 않다는 데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이미 상세히 이야기했다. 여기서는 그 가학과 자학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자기기만의 의식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김영찬, 「김승옥 소설의 심상지리와 병리적 개인의식의 현상학」, 『비평극장의 유령들』, 창비, 2006, 248~253쪽 참조.

앞질러 손수 대리하는 행위다. 이때 자해의 칼끝은 명민하게도 자기 안의 가장 여린 부분을 향한다.

「생명연습」에서 "한 오라기의 죄도 거기에는 섞여 있지 않은" "화사한 왕국의 신기루(1; 47~48쪽)", 「건」에서 "나의 뜨거운 이마에 손을 얹어주었으면"(1; 75쪽)하고 바라게 되는 윤희 누나의 위안과 평온의 손길, "가슴 뛰는 놀이"를 함께 하던 미영과의 추억에서 연상되는 순백의 이미지("하얀 색의 벽에 하얀 색의 크레용"1; 57쪽) 같은 것들은 '나'의 가장 여린 순수의 욕구가 향하는 것들이고, 그런 한에서 자기 안의 순수를 환기하는 것들이다. 그런 만큼 이것들은 자기 안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고 또 아늑하지만 취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것들이다. 김승옥의 인물들은 예정된 패배 앞에 취약한 이 모든 것들에 자기 손으로 먹칠을 해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들이 그때 동원하는 폭력과 패륜은 그 모든 순수의 가치로부터 스스로를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지게 만들어 그에 대한 미련을 깨끗하게 차단하려는 왜곡된 술책이다.

김승옥의 인물들은 그렇게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성에 대한 가해라는 우회로를 통해 자기 내면의 무구(無垢)와 순수를 스스로 더럽힘으로써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예컨대 「건」의 '나'는 물론이고 선애를 자살로 몰고가는 「환상수첩」의 정우, 유학을 가기 위해 사랑하는 연인을 짓밟는 「생명연습」의 한 교수 등의 행위가 모두 그런 맥락에 있다. 자기기만으로의 도피는 이처럼 파괴적인 과잉방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그 파괴와 왜곡을 자기의 능동적인 선택으로 밀어붙이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또 다시 뒷문으로 불러들인다는 점이다. 그들의 기만의 논리는 그럼으로써 한층 더 모순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그들의 자기기만은 애초 위장된 '나'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원래의 '나'를 부정하고 회피하는 데서 출발했다. 그런데 이후 부정의 칼끝은 원래의 '나'에서 위장된 '나'에게로 다시 되돌려진다. 위장된 '나'에 대한 부정은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고 '나'의 행동도 실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변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건」에서 윤희 누나를 윤간하려는 형의 모의를 자발적으로 돕기로 한 '나'가 그녀 앞에서 뜬금없이 느끼는 '억울함'이 그렇다.

> 윤희 누나 앞에 서자, 나는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이 어지러워서 몸을 잘 가눌 수가 없었다. 억울한 일로 선생님한테서 꾸중을 들었을 때 나는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었다.(「건」 1; 79쪽)

자기 손으로 더럽히려 하는 윤희 누나 앞에서 '나'는 몸을 가눌 수 없는 어지러움을 느낀다. 그 어지러움은 억울한 일로 선생님한테서 꾸중을 들었을 때 느끼던 기분이다. '나'가 지레 상상하는 윤희 누나의 비난의 시선은 자기가 하지 않은 일로 꾸중을 들었을 때처럼 억울한 감정과 어지러움을 유발한다. 이 억울함과 어지러움의 의미는 이 앞에서 '나'가 빨치산의 시체를 둘러싼 풍경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의지"(1; 65쪽)를 떠올리고 겪는 어지러움("나는 그저 어지러움만을 느끼고 있었다."1; 66쪽)과 겹쳐놓았을 때 보다 분명해진다. 그 어지러움이 알 수 없는 힘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어딘가로 강제로 떠밀어가는 역사의 폭력을 어렴풋이 감지한 데서 오는 무의지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면, '나'가 형의 모의에 가담하는 시점에 그때와 똑같이 어지러움을 느꼈다고 고백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더구나 윤희 누나 앞에서 느끼는 '나'의 어지러움은 억울함이라는 감정까지 동반한다.

여기에서 작동하는 것은 자신의 자발적인 행위의 책임을 자신을 압박하는 저 "무시무시한 의지"에로 돌리고 싶은 무의식이다. 그런 측면에서 윤희 누나 앞에서 느끼는 억울함을 동반한 어지러움은 자기도 의식 못한 채 자기에겐 죄가 없으며 혹여 있다 해도 강제에 떠밀린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설득하고 변명하는 자기기만의 증상이다. 그리고 여기엔 "그것이 '자라난다'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버리는 또 하나의 변명이 추가된다.

영빈의 사악한 저의를 알면서도 선애를 그에게 넘기는 「환상수첩」의 정우의 의식도 이와 방불하다. 둘을 소개시켜주는 자리에서 정우는 "피와 흙이

범벅이 됐을 때 생기기나 할 어두운 색을 하고 있을" "'운명'이라는 단어"(「환상수첩」 2; 23쪽)를 뜬금없이 떠올린다. 자신의 자발적인 패륜을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잔인한 운명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변명의 의지가 자기 몰래 개입하는 장면이다. 이처럼 김승옥의 인물들은 자기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패륜이 실상은 자발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끌려간 수동적인 것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그렇게 믿거나 믿고 싶어 한다. 자신을 그저 상황에 종속된 수동적인 대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결정이 사실은 억지로 떠밀린 수동적인 것이었다고 자기를 설득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야말로 자기기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21]

이렇게 보면 김승옥의 인물들이 펼쳐놓는 자기기만에는 이중의 부정이 존재한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회피하거나 스스로 훼손하고, 그걸 주도하는 위장한 '나'의 행위 역시 실은 어쩔 수 없이 떠밀린 수동적인 것이었다고 변명한다. 있는 그대로의 '나'에 대한 부정이 있고, 그 '나'를 부정하는 위악적인 '나'의 자발성에 대한 부정이 있다. 이 이중의 부정이 김승옥의 자기기만의 세계를 한층 복잡 미묘하고도 절망적인 것으로 만든다.

4. 자기기만의 유혹, 쓸쓸하거나 즐겁거나

김승옥의 인물들은 이토록 필사적으로 자기기만으로 도피하는 자들이다. 그 자기기만은 때로는 실패하고(대표적으로 「환상수첩」의 '나'는 자살한다), 또 성공하더라도 "곰팡이와 거미줄"(「생명연습」 1;30쪽) 같은 어두운 잔해를 남긴다. 「생명연습」의 '나'와 한교수처럼 이미 평온 속의 자기기만을 살아가는 인물들에게 남은 것은 그저 침묵이 아니면 쓸쓸한 웃음과 냉소뿐이다. 대표적으로 「생명연습」과 「환상수첩」, 「건」이 그렇게 자기기만의 도피가 야기하는 뒤틀린 왜곡과 자해를 전면화한다면, 이후 다른 소설들은 자기기만이

21) 이러한 자기기만의 의식구조에 대한 설명은 서동욱, 위의 글, 9~13쪽 참조.

이미 생활화된 인간들의 쓸쓸하고도 희극적인 연기(演技)를 펼쳐놓는다.

김승옥의 인물들은 대부분 자기의 모든 사고와 행위가 다름 아닌 자기기만의 술책임을 알고 있다.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를 속이는 것만이 자기를 보존하는 생존의 기술임을 삶 속에서 깨우치기 때문이다. 가령 「환상수첩」과 「생명연습」의 인물들이 이 진실을 절망의 포즈와 쓸쓸한 웃음 혹은 침묵으로 은폐하고 있다면, 「역사(力士)」의 '나'는 특이하게 자기도 자기의 기만을 알고 있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한다.

> 사실 나 자신도 나의 무궤도하고 부랑아 같은 생활태도를 비록 내 천성의 게으름과 가난한 자들의 특징인 금전의 낭비벽, 그리고 이제는 돌아갈 고향도 없이 죽는 날까지 이 서울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절망감에다가 **핑계를 대고 변명해 보려 했지만** 아직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써도 내 생활태도 개선의 가능은 충분하다는 점에 생각이 미치면 **나도 나 자신의 기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곤 했던 참이라** 그 친구의 의견을 고맙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역사」 1; 88~89쪽-강조는 인용자.)

「역사」의 '나'는 자기가 내세우는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이 자기기만의 술책임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양옥집 식구들이 마시는 보리차에 홍분제를 타서 그들의 규칙적인 질서를 깨트리려는 자신의 행동이 "안주에의 동경"(1; 105쪽)을 은폐하고 빈민가에 대한 "죄의식"(1; 109쪽)을 보상하려는 간교한 속임수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자기의 행동을 "일종의 비겁한 보상행위라고 누가 곁에서 말했다면 나는 정말 즐거워져서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을 것이다"(1; 109~110쪽)라고 말한다. 그것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자기기만의 행위에 불과함을, 그리고 자기도 이를 잘 알고 있음을 유머러스하게 긍정하는 것이다. 게다가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동대문에 나가 거대한 돌덩이를 들어올리는 서씨의 기행(奇行)을 '나'가 "거짓 없는 행위"이자 "몽상적인 의미에서의 성실"(1; 106쪽)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실은 자기의 기만을 스스로 의식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거짓 없는 행위'와 '몽상적인

의미에서의 성실'이란 모두 자기를 속이지 않는 행위를 뜻하는 까닭이다.[22] 그런 서씨를 보고 '나'는 "자신에 대해서 어이가 없음을 느꼈다"(1; 105쪽)고 말한다. '나'는 서씨라는 거울을 통해 그와 정반대인 자기기만의 거짓을 떠올리고 일순간이나마 자기를 반성적으로 비추어보는 셈이다.

「역사」에서 자기기만이 이러한 아이러니한 자의식 속에서 펼쳐진다면, 그런 면에서는 「무진기행」 또한 다르지 않다. 하지만 「역사」가 '나'의 자기기만을 유머러스하게 상대화하고 있는 반면, 「무진기행」의 자기기만은 한층 더 침착하고 교묘하다. 김현은 「무진기행」이 "인간이 얼마만큼 자기기만을 감수하고 있느냐에 대한 침통한 진술"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비열한 타협안을 통해 과거와 결별하려는 윤희중의 행위를 "지독한 태도의 희극"이라는 한마디로만 간단히 정리한다.[23]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자기기만이라는 것인가?

다음은 윤희중이 모든 일이 마무리됐으니 상경하라는 아내의 전보를 받고 서울로 데려가겠다는 하인숙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무진을 떠나기 전의 장면이다.

> 모든 것이 선입관 때문이었다. 결국 아내의 전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것이, 흔히 여행자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 때문이라고 아내의 전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것이 세월에 의하여 내 마음속에서 잊혀질 수 있다고 전보는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처가 남는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랫동안 우리는 다투었다. 그래서 전보와 나는 **타협안**을 만들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무진을, 안개를, 외롭게 미쳐가는 것을, 유행가를, 술집 여자의 자살을, 배반을, 무책임을 긍정하기로 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다. 꼭 한 번만.** 그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한정된 책임 속에서만 살기로 약속한다.(「무진기행」 1; 193쪽--강조는 인용자)

---

22) 이때 '성실'이 자기기만의 불어 'mauvaise foi'(bad faith)의 반대말인 'bonne foi'(good faith)의 한국어 역어(譯語)라는 점도 절묘하다.

23) 김현, 앞의 글, 242~235쪽.

윤희중에게 무진, 안개, 외롭게 미쳐가는 것, 유행가, 술집 여자의 자살, 배반, 무책임은 모두 무기력했던 과거의 '나'를 환기하는 것들이다. 그것들은 모두 과거의 '나'다. 전보는 과거의 '나'를 버리고 이제 빨리 책임감 있는 '무관심한 표정'의 생활인으로 복귀하라고 재촉하고, 그는 긍정과 부정을 오가며 망설인다. 「역사」의 '나'가 "비겁한 보상행위"를 생각해내는 것처럼, 「무진기행」의 윤희중도 와중에 "비열한 타협안"을 만들어낸다. 그가 생각해낸 타협안이란 하인숙(그녀는 과거의 '나'다)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적은 후 곧바로 찢어버리는 행위다. 사랑한다고 하고 곧바로 취소한다. 그럼으로써 과거의 '나'는 정말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긍정된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긍정하겠다는 말 속에는 이미 결국엔 부정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그 긍정은 부정을 위한 긍정이고,[24] 자기를 속이기 위한 긍정이다. 한 번만 긍정하겠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과거의 '나'를 망각하리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때 아내의 전보는 자기의 결정을 어쩔 수 없는 상황 탓으로 미루는 맞춤한 핑계이자 변명의 무기다. 윤희중은 이것이 자기기만에 불과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책임"이라는 말로써 자기를 또 한번 속인다. 윤희중이 무진을 떠나면서 느끼는 '부끄러움'은 이처럼 스스로를 알고 있는 자기기만의 부산물이다.

「무진기행」의 윤희중이 자기기만이 생활화된 인간의 쓸쓸한 연기를 보여준다면, 「서울 1964년 겨울」의 '나'와 대학원생 '안(安)'은 이미 일상으로 내면화된 그 자기기만의 쓸쓸한 공허를 연기한다.[25] 김현은 「서울 1964년 겨울」의 대학원생 '안'에 이르러 비로소 김승옥의 인물이 자기기만에서 벗어난다고 평가하지만,[26] 그와 반대로 이 소설이야말로 생활로서 내면화된 자기기만의 정점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했다가 실패하고 지금은 구청 병사계에서 일하는 '나'

24) 자기기만의 의식은 "부정하기 위해 긍정하고 긍정하기 위해 부정한다"는 사르트르의 지적은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여기에도 적중한다. 장 폴 사르트르, 앞의 책, 113쪽.

25) 이 연기(演技)도 자기기만의 한 양태라고 할 수 있는데, 사르트르에 따르면 자기기만은 많은 부분 자기가 이런저런 주체로 있음을 연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책, 131~133쪽 참조.

26) 김현, 앞의 글, 244~245쪽.

가 어느 겨울밤 선술집에서 도수 높은 안경을 쓴 대학원생 '안'을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수작한다.[27] 파리를 사랑하느냐는 뜬금없는 '나'의 질문으로 시작된 그들의 대화는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하십니까?"라는 '안'의 질문에 이어 만원버스 좌석에 앉은 여자의 오르내리는 아랫배에 대한 '나'의 얘기로 맥락 없이 건너뛰며 간간이 이어진다.

> "난 방금 생각해봤는데 김형의 그 오르내림도 역시 꿈틀거림의 일종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
> "그렇죠?" 나는 즐거워졌다. "그것은 틀림없는 꿈틀거림입니다. 난 여자의 아랫배를 가장 사랑합니다. 안형은 어떤 꿈틀거림을 사랑합니까?"
>
> "어떤 꿈틀거림이 아닙니다. 그냥 꿈틀거리는 거죠. 그냥 말입니다. 예를 들면…… 데모도……"
>
> "데모가? 데모를? 그러니까 데모……"
>
> "서울은 모든 욕망의 집결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 "모르겠습니다"라고, 나는 할 수 있는 한 깨끗한 음성을 지어서 대답했다.(「서울, 1964년 겨울」 1; 263쪽)

이 대목에 이어 '안'은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같은 느낌이 듭니다."(1; 263~264쪽) 무엇이 거짓말이라는 것인가?

이 대화에서 "꿈틀거림"이라는 모호한 단어는 오르내리는 "여자의 아랫배"라는 "퍽 음탕한 얘기"(1; 262쪽)를 우회해 (말줄임표가 암시하는) 망설임 끝에 가까스로 발화되는 "데모"라는 말과 연결된다. 그럼으로써 우발적으

---

27) 소설에서 이 둘의 대화는 서로가 동일한 언어게임의 규칙을 공유하는 데다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대화라고 하긴 힘들다.(가라타니 고진, 송태욱 옮김, 『탐구 1』, 새물결, 1988, 14쪽 참조.) '안'이 "김형과 나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서 같은 지점에 온 것 같습니다"(1; 269쪽)라고 말하는 데서도 암시되듯, '나'와 '안'은 실은 둘이 아닌 한 의식의 양면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따라서 이 대화를 하나의 의식 안에 공존하는 '속이는 자'와 '속는 자'를 둘로 분리해 이루어지는 일종의 자기기만의 연극이라고 보는 것도 우리의 맥락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한 방편일 수 있겠다.

로 떠오른 4 · 19 혁명의 이미지는 이어진 '나'의 "데모가? 데모를? 그러니까 데모……"라는 반복적인 반문과 이어진 침묵에 의해 일순 긍정되는 동시에 부정된다. 그리고 '나'의 말을 끊어버리는 "서울은 모든 욕망의 집결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라는 '안'의 뜬금없는 말은 '꿈틀거림'에서 나온 '데모'의 연상을 서둘러 철회하면서 다시 '음탕한' '여자의 아랫배'로 초점을 은근슬쩍 되돌려놓는다. 다급한 부정이다. 그리고 저 부정은 "모르겠습니다."라는 '나'의 말을 통해 다시 한번 부정된다.[28] 그들은 부정하기 위해 긍정하고 긍정하기 위해 부정한다.

이 대목에서 "꿈틀거림"의 연상을 거쳐 의식의 표면에 순간적으로 떠오른 4 · 19의 이미지는 그들의 권태와 공허가 4 · 19 혁명 이후의 환멸과 좌절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그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자기기만의 본질은 진실을 알면서도 자기를 속이는 거짓말이다.[29] 그래서 대학원생'안'은 말한다. "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안'의 말에 "아니오"라고 부정하며 "내가 한그 얘기는 정말입니다"(1; 262쪽)라고 강조하는 '나' 또한 겉으론 다른 것처럼 보여도 다르지 않다. '정말'이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거듭 강조하며 거짓말임을 부정하는 저 제스처는 그 '정말'이 실은 거짓말이라는 진실을 거꾸로 그 강한 부정을 통해 드러낸다.[30] '나'는 부정하면서 긍정한다. 그것은 정말임을 주장하는 거짓말이다. 이들의 수작은 저 숨은 진실을 자기에게 또 다시 숨기려는 거짓말의 연기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기만을 몸소 연출한다. 이 대화의 끝에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28) 이 장면에 대해서는 4 · 19를 모른 척하고 부인해야만 하는 그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조로(早老)한 젊음의 냉소주의적 태도와 관련해 이미 부분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다. 여기서 인물들은 (4 · 19가 있었음을) '알고 있어. 그렇지만……'으로 요약되는 물신주의적 부인(否認)의 공식을 몸소 연기하는데, 사실은 이 또한 자기기만이 작동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다만 그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한다. 김영찬, 「혁명, 언어, 젊음 : 4 · 19의 불가능성과 4 · 19세대 문학」,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한국학논집』, 2013, 25~30쪽 참조.

29) 장 폴 사르트르, 앞의 책, 114~117쪽.

30) 여기에서 작동하는 것은 프로이트가 말한 부정(Verneinung)의 메커니즘이다. 그에 따르면 부정은 억압된 것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찬부 옮김, 「부정」, 『쾌락원칙을 넘어서』, 열린책들, 1997, 197~203쪽 참조.

서 “할 수 있는 한 깨끗한 음성을 지어서 대답했다”고 굳이 덧붙이는데, 이는 ‘나’ 스스로 자기들의 대화가 일종의 연기임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때 이들이 “꿈틀거림”이라는 단어에서 ‘여자의 아랫배’와 ‘욕망’에 대한 연상으로 초점을 돌려놓는 것은 그 말의 액면 그대로의 의미 외에 다른 것(예컨대 4 · 19 혁명)은 읽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달리 말하면 이는 그 단어에 은밀히 숨은 의미와 맥락을 짐짓 모른 척하고 진실을 보지 않으려는 자기기만적 의지의 표현이다.[31] 이들이 예컨대 ‘단성사 옆 골목의 첫 번째 쓰레기통에 있는 초콜릿 포장지 두 장’이나 ‘적십자병원 정문 앞에 있는 부러진 호두나무 가지’ 등등의 아무런 의미 없는 쇄말적인 사물들의 디테일을 나열하며 말을 이어가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진실을 보지 않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은 숨은 의미를 모른 척 할 필요도 없이 아예 이렇게 액면 그대로의 물성(物性) 이외에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는 무의미한 사물들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다.

대학원생 ‘안’은 말한다.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는 일일까요? 그런 사물을 바라보며 즐거워 한다는 게 말입니다.”(1; 268쪽) 자기기만은 그렇게 ‘의미’의 초점을 무의미한 사물들로 돌려놓고 거기에 자기만의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의 전도(顚倒)를 통해 즐겁게 완성된다. 과연 그들은 즐거워한다. 자기만이는 자질구레하고 무의미한 사물들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자 “안의 얼굴에 놀라운 기쁨이 빛나기 시작”(1; 264쪽)한다. 무겁게 가라앉았던 그들의 대화는 그때부터 놀라운 기쁨과 어리둥절한 활기를 띠게 된다. 공허와 환멸, 소외와 체념의 진실을 가리고 자기를 속이는 그 표면의 활기와 즐거움이야말로 아마도 김승옥의 인물들이 빠져들어가는 자기기만의 유혹일 것이다.

---

31) 사르트르는 남자와 첫선을 보는 여자의 예를 들면서 상대방이 하는 말 뒤에 숨은 성적 의도를 잘 알면서도 의도를 숨기는 남자의 의례적인 말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여자의 의식을 자기기만이라 설명한다. “그녀는 상대편이 자신에게 하는 말 속에서 그 문장의 명백한 의미 이외에 다른 것은 읽으려 하지 않는다.” 장 폴 사르트르, 앞의 책, 125쪽.(번역 일부 수정)

5. 결론을 대신하여 : 감수성이라는 전리품

김승옥의 소설에서 자기기만은 이렇게 작동한다. 그의 인물들에게 자기기만은 불안과 혼란 속에서 부정적인 방식으로나마 자아를 지탱하려는 안간힘의 소산이다. 그들의 자아는 자기를 속임으로써만 정당화되고, 자기기만 속으로 도피함으로써만 보존된다. 그들의 자기기만을 부추기는 것은 아무런 주체적인 판단과 선택이 필요치 않은 "긍정이라든지 부정이라든지 하는 따위의 의미를 일체 떠난 순종의 성곽"(「생명연습」 1; 53쪽)에 안주하려고 하는 도피의 욕망이다. 그들은 자기의 기만을 어쩔 수 없다는 체념과 절망의 포즈로 방기하기도 하고, 스스로 비웃거나 조롱하기도 한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행위가 자기를 속이는 기만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는 어쩔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속이고 그렇게 한다. 김승옥의 이 자기기만의 세계는 「생명연습」, 「건」, 「환상수첩」처럼 자학과 가학, 증오와 죄의식이 뒤범벅된 어두침침한 무대에서 시작되지만, 뒤로 갈수록 가벼운 풍자와 아이러니, 유희적 연기와 뜬금없는 활기가 동반되기도 한다.

이것이 일찍이 김현이 김승옥의 소설을 다룬 글인 「구원의 문학과 개인주의」에서 보면서도 보지 않고 읽지 않은 채 공백으로 남겨놓은 자기기만의 전모다. 김현은 김승옥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자기기만의 행태를 이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태도의 희극'이라 이름 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이 그 '못된 놈들'의 부정적인 행태를 반성적으로 거리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와 동일시하는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한다.

> 가장 성실하게 세계를 살아나가는 듯한 사람들이 결국 얼마나 간교한 자기기만을 통하여 '개같은 놈'으로 변해버리는가를 그는 그 독특한 풍자력을 발휘해서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쳐놓은 함정에 항상 빠지고 마는 듯하다. 성실하지 못하고 작위로 세계를 계속 살아나가는 그의 주인공들을 그는 매우 자기 존재에 대해 괴로워하고 채찍질하는 피가 도는 사람으로 그려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체념감에 동감해버리고 오

> 히려 그러한 체념을 감수하며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의 주인공들을 마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 위대한 사람들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다. (……) 그 못된 놈들에 대한 작가의 치근차근하고 정감 있는 눈초리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오히려 순교자로 착각하고 있는지 모른다.[32]

김승옥이 자기기만에 빠져 있는 인물들을 너무도 "치근치근하고 정감 있는 눈초리"로 생생하고도 설득력 있게 그려놓기 때문에 대부분의 독자들이 그 인물들의 체념적인 고뇌에 공감하고 그와 동일시하는 함정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다. 실로 그렇다는 점에서 정당한 우려다. 하지만 이 우려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김승옥의 소설에는 인물들의 자기기만을 상대화하는 아이러니의 시선이 분명 존재하지만, 작가의 공감은 그 아이러니의 시선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자기기만을 일상화하는 인물들의 자의식에 훨씬 더 기울어 있다. 그들에게 김승옥이"치근치근하고 정감 있는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바로 자기기만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좌절과 고뇌에 혁명과 반혁명 이후의 한국적 삶의 혼돈 속을 방황하는 작가 자신의 자의식이 정확하게 겹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김승옥에게 그들은 곧 자기 자신의 일면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김승옥의 소설을 읽는 이들은 똑같이 저들이 앓는 고뇌와 쓸쓸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인물들의 자기기만을 감싸고 있는 복잡다단한 감정의 파편들, 주어진 현실을 수락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오는 체념과 죄의식과 도피의 유혹, 자기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숱하게 오가면서 혼란스런 자아를 추스르려는 무력한 분투, 알면서도 모른 척 짐짓 시선을 돌리며 부려보는 객기와 유희. 이 모든 것들은 작가 자신의 것이면서 1960년대의 혼란스런 한국적 삶을 방황하는 당대 조로한 젊음의 체념적 의식이 투사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자기기만의 의식이 김승옥 소설 특유의 감수성의 원천과도 그

32) 김현, 앞의 글, 246~247쪽.

리 무관하지 않음을 마지막으로 지적해야겠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사실 자기기만이란 선택과 책임의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비겁한 책략이다.[33] 자기기만의 의식은 그렇게 선택을 회피하는데, 김승옥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것도 바로 그런 선택의 회피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택의 회피는 판단의 유보 혹은 판단할 수 없음이라는 인식과 짝지어져 있다. 그들은 자기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오가며 배회하고, 그런 자기 확신의 부재는 판단과 선택의 가능성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한다.

실제로 그들은 소설 속에서 무엇이 정말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자기로선 "진(眞)과 위(僞)의 차이를 구별해낼 수 없"(「환상수첩」 2; 58쪽)다고 말한다. 그들은 판단을 해야 할 순간에 "글쎄요"라고 물러서버리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모르겠다"(「역사」 1; 112쪽)거나 "모르겠습니다."(「서울 1964년 겨울」 1; 263쪽)는 말로 판단을 미뤄버린다. "나로서는 그 이상 자세히는 모르겠다"(「생명연습」 1; 35쪽)며 은근슬쩍 말을 흐려버리는가 하면 "나란 놈은 알 수 없는 놈인가 보다"(「역사」 1; 105쪽)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를 가장해보기도 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차라리 판단하지 않음을, 선택하지 않음을 선택한다. 예컨대 「확인해본 열다섯 개의 고정관념」에서 '나'는 생각한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괴로워하며 '사이'에 위치하는 게 좋다. '사이'란?" 그리곤 곧바로 끈금없는 결론이 이어진다. "아마 영이(부잣집 딸의 이름－인용자))쯤이겠지."(1; 153쪽) 그럼으로써 '나'는 '사이'라는 선택지가 가질 법한 진지한 의미를 곧바로 철회해버리고 그 선택 자체를 희화화하면서 무효로 만들어버린다.

확실히 이것은 불안으로부터의 도피다. 그렇지만 김승옥의 소설에는 저 도피가 만들어내는 역설이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김승옥 소설의 매혹적인 감수성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단서를 김승옥은 소설의 곳곳에 뿌려놓고 있다. 예컨대 '나'는 말한다. "설화가 없어서 우리는 좀 우둔했고 **판단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렇듯이 세상을**

33) 장 폴 사르트르, 방곤 옮김,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문예출판사, 2012, 21쪽 참조.

느끼고만 싶어 했다."(「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1; 126쪽-강조는 인용자) 이것이 은밀히 암시하는 것처럼, 김승옥 소설에서 판단과 선택의 유보는 역으로 세상의 촉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느낌'과 감수성이 활동하는 공간을 열어놓는다. 김승옥에게 '느낌'과 감수성은 세상으로부터 물러난 자아가, 스스로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오가며 흔들리는 자아가, 오직 자기만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지극히 사적인 자기만의 영역이다. 정말로 그렇다는 듯이 「서울 1964년 겨울」의 '안'은 김승옥을 대신해 말한다. "(낮에는 그렇지 않지만 밤거리에 나오면-인용자) 난 모든 것에서 해방된 것을 느낍니다. (……) 모든 것이 밤이 되면 내 시선 앞에서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놓고 쩔쩔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는 일일까요?" 여기에 그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느낀다"(1; 268쪽)고 덧붙인다. 세상에 패배하고 도피하는 자아는 멀리 떨어진 세상을 그렇게 '느낌'으로써(만) 자기를 확인한다.

화려한 감수성은 그렇게 좌절과 도피의 공간에서 피어난다. 의미의 확정적인 판단을 망설이게 하는 문장들의 다채로운 모호성도 다름 아닌 그곳에서 만들어진다. 마치 무진의 '안개'처럼 이것과 저것, 긍정과 부정 사이를 오가며 어느 하나의 의미에 안주하지 않는 감각적 언어의 활기도 마찬가지다. 이 언어와 감수성의 매력이야말로 인물들의 쓰라린 자기기만에 공감하는 김승옥의 소설이 도피를 통해 수확해낸 빛나는 전리품일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복도훈, 『자폭하는 속물－혁명과 쿠데타 이후의 문학과 젊음』, 도서출판 b, 2018.

가라타니 고진, 송태욱 옮김, 『탐구 1』, 새물결, 1988.

장 폴 사르트르, 정소성 옮김, 『존재와 무』, 동서문화사, 2009.

_____, 방곤 옮김,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문예출판사, 2012.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찬부 옮김, 『쾌락원칙을 넘어서』, 열린책들, 1997.

2. 비평 및 논문

김병익, 「일세대의 의미」, 『한국문학』, 1969년 1월호.

김승옥, 「나와 소설쓰기」, 『무진기행』, 김승옥 소설전집 1(개정판), 문학동네, 2004.

김승옥, 「후기」, 『야행』, 정음사, 1972.

김영찬, 「김승옥 소설의 심상지리와 병리적 개인의식의 현상학」, 『비평극장의 유령들』, 창비, 2006.

_____, 「혁명, 언어, 젊음 : 4 · 19의 불가능성과 4 · 19세대 문학」,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한국학논집』, 2013.

김윤식, 「잃는 세대의 문학」, 『현대문학』, 1969년 10월호.

김주연, 「새시대 문학의 성립－인식의 출발로서 60년대」, 『아세아』, 1969년 2월호.

김 현, 「미지인의 초상 1－승옥과 성원의 경우」, 『세대』 1966년 8월호.

_____, 「구원의 문학과 개인주의」, 『사회와 윤리』, 일지사, 1972.

서동욱, 「사르트르에서 병리적 의식과 자기기만」, 한국현상학회, 『철학과 현상학 연구』 57호, 2013.

설혜경, 「김승옥 소설의 죄의식의 경제와 자본주의 논리」,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의 연구』 48호, 2012.

신아현, 「극기에의 실패－김승옥 초기 소설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0호, 2016.

이광호,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마조히즘과 시선의 문제」, 한국현대문학회, 『한국현대문학연구』, 39호, 2013.

이수형, 「주체의 책임과 자유－김승옥의 중 ·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상허학회, 『상허학보』 16호, 2006.

The Phenomenology of Self-deception in Kim Seung-ok's Novel

Kim Youngchan*

This article traces the consciousness structure of self-deception that drives the psychology of Kim Seung-ok's novel. The characters of Kim Seung-ok's novel know that all their thoughts and actions are tricks of self-deception. They know and yet they do. This is because they realize in their lives that deceiving them is the only skill of survival that preserves them. Kim Seung-ok's novel unfolds the lonesome and comic acting of humans whose self-deception has already become a part of their daily lives or the warped distortions and self-harm caused by such escape from self-deception. He overlaps their frustration and anguish, which forced them to flee by deceit, with the writer's own uncomfortable self-consciousness wandering in the chaos of Korean life after the revolution and counter-revolution. And this sense of self-deception is not unrelated to the source of sensitivity unique to Kim Seung-ok's novel. The avoidance of choice shown by Kim Seung-ok's characters is paired with the perception that it is impossible to judge. For them, the absence of self-confidence blocks themselves from the possibility of judgment and choice. The self who is defeated by the world and escapes only confirms himself by "feeling" the distant world. The glamour of flamboyant sensitivity blooms like that in a space of frustration and escape. This sensitivity will be the shining spoilage harvested by Kim Seung-ok's novel, which sympathizes with the bitter

* Professor,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Keimyung University

self-deception of the characters, through escape.

Key words : self-deception, self-world, comedy of attitude, acting, flight, sensitivity, anxiety, choice

논문투고일 : 2023년 1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23년 2월 16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2월 17일